

## 덕력의 우주로 떠나는 첫 번째 탑승, 'READY, SET, 덕력호'

2026. 6. 17.



서울 홍대 한복판에 로켓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지식재산(IP)을 보유한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해 선보인 체험형 팝업스토어, '쿠팡콜라보클럽'입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산리오, 포켓몬, 짱구 등 인기 캐릭터 굿즈는 물론 K-뷰티, K-팝, 패션 아이템, 그리고 먹방 크리에이터 썬양의 단독 출시 상품까지 다양한 IP 협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우주선 '덕력호'에 탑승해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즐기는 특별한 여정을 경험했는데요. 쿠팡 뉴스룸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한 우주에! 덕후들의 유토피아 <쿠팡콜라보클럽>



홍대 'ㅎ드카페'에 마련된 쿠팡콜라보클럽 팝업스토어 전경

'쿠팡콜라보클럽'은 쿠팡이 지난 5월 28일 론칭한 협업 상품 전문관입니다. K-굿즈부터 글로벌 인기 캐릭터 상품까지 다양한 협업 상품을 한곳에서 찾아보고,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쿠팡은 전문관 론칭을 기념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홍대에서 약 140평 규모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협업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각기 다른 브랜드와 IP가 만나 탄생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봄에 특별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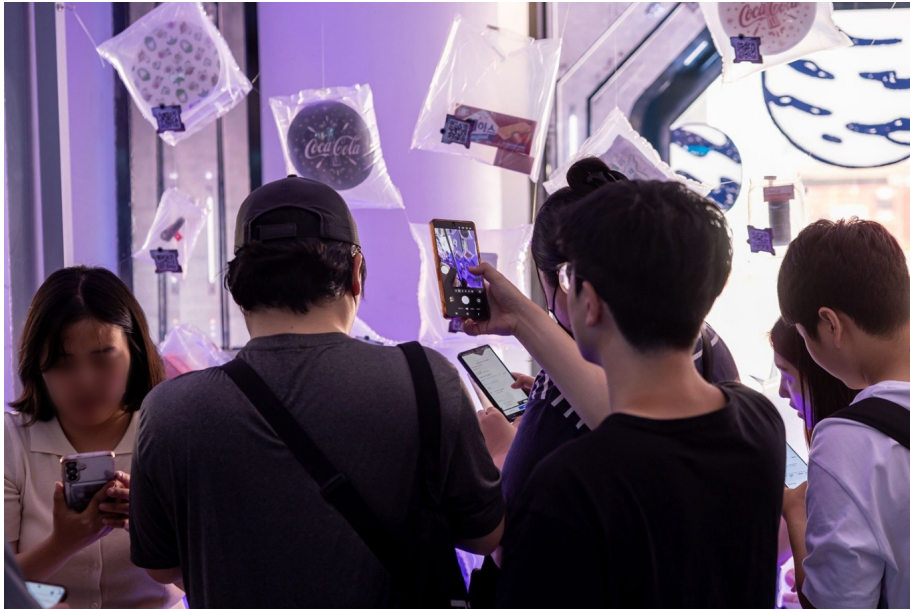
팝업스토어는 건물 1층과 2층 전체를 하나의 우주 베이스캠프로 꾸몄습니다. 콘셉트는 'READY, SET, 덕력호'. 방문객은 덕력 트렌드와 취향을 가득 실은 제1호 로켓 덕력호의 크루가 되어 로켓 곳곳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덕력호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은빛 금속 패널과 푸른 조명이 감싸는 'WELCOME TO 덕력호 존'을 지나게 됩니다. SF 영화 속 우주선 복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덕력호의 크루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 발견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덕질의 즐거움





전시 상품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쿠팡 앱에서 바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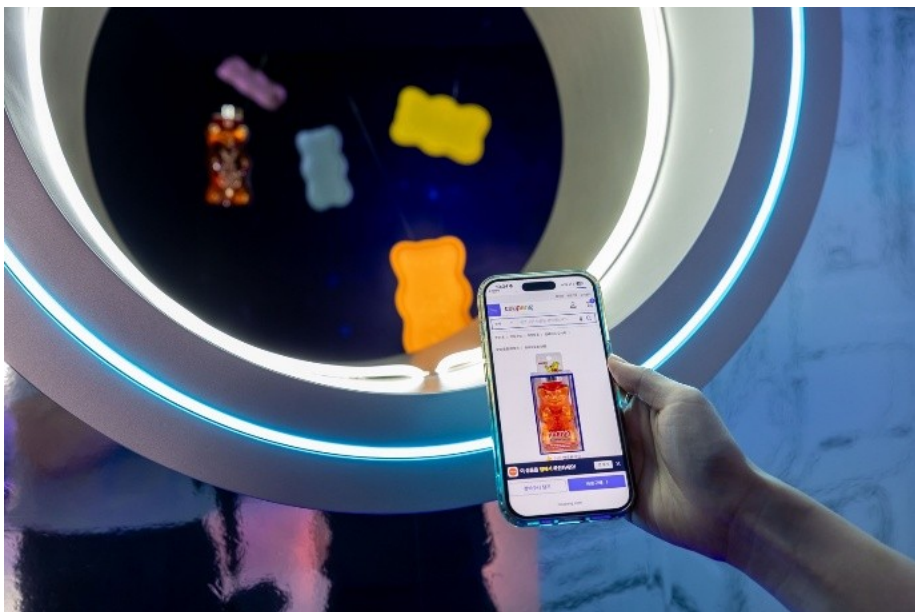
복도를 지나면 우주를 배경으로 덕력호 로켓 모형이 자리한 메인 포토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토존 옆 전시 공간에는 에어백 형태로 진공 포장된 20여 개의 협업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오에스, 코카콜라 등 친숙한 브랜드와 협업한 라이프스타일 상품부터 디즈니 마우스패드, 산리오 캐릭터 가방걸이 같은 캐릭터 굿즈까지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팝업스토어 내부 곳곳에는 관련 상품의 QR 코드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현장을 자유롭게 둘러본 뒤, 마음에 드는 상품을 스캔해 쿠팡 앱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쿠팡클라브클럽에는 쿠팡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함께 선보인 ‘발명가 테마관’도 마련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도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 발명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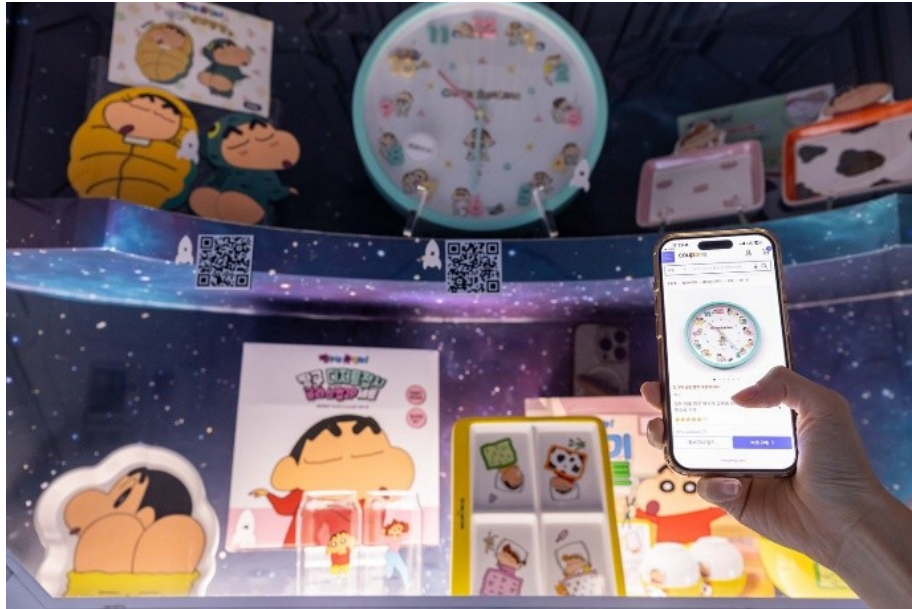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해당 제품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발명 대회 존’도 운영했습니다. 우주 암석 오브제로 현장 물입감을 더한 이 공간에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여성 발명기업들이 개발한 32개의 IP 제품이 진열되어, 소비자들이 여성 발명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발명 대회 존'을 지나면 다음 공간인 '덕력호 터널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푸른 조명과 우주선 내부를 연상시키는 벽면, 원형 장치

럼 꾸며진 디스플레이가 어우러져 마치 무중력 공간을 통과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터널 곳곳에는 캐릭터 굿즈와 식품,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25개의 협업 상품이 우주를 떠다니는 듯 진열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1층의 마지막 공간인 '인박스 포토존'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우주선 격납실을 연상시키는 통로 양옆으로 번호가 매겨진 부스가 들어서 있고, 각 부스에는 포켓몬, 짱구, 산리오, 라바 등 인기 캐릭터 IP 별로 150여 개의 굿즈가 진열되었는데요. 방문객들은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 세계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드는 상품 옆 QR 코드를 스캔해 쿠팡 앱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며 덕력호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방문객 가족. 인박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은 포토 프린터로 즉석 인쇄할 수 있다

## 덕력 레벨 업! 체험으로 완성되는 덕력호 탐험





‘인박스 포토존’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보다 본격적인 덕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2층은 ‘K-팝 레일존’, ‘집중상품 DP존’, ‘가차존’, ‘리워드 수령존’, ‘덕력 아카이빙 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브랜드 IP 상품부터 K-팝 관련 굿즈까지 다양한 협업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K-팝 레일존’입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진열대 위에는 BTS, 블랙핑크 제니, 아이브, 코르티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앨범과 굿즈, 스티커로 꾸민 캐리어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듯, 레일 위 굿즈들 사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상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벽면을 따라 네 개의 테마 부스가 이어집니다. '뷰티 스테이션', '패션 스테이션', '캐논존', '프양 스테이션'까지 콘셉트 별로 꾸며진 공간에서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뷰티 스테이션'에는 언파, 퓨어그램, 베라모어 등 78개에 달하는 K-뷰티 상품이, '패션 스테이션'에서는 크록스, 디즈니, 산리오, 파리생제르망 등 47개의 패션 IP 협업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캐논존'에서는 캐논 카메라와 영상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프양의 자체 브랜드 '프토리' 신상품이 처음 공개된 프양 스테이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공간은 단연 '프양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약 1,3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프양과 쿠팡이 협업해 선보인 브랜드 '프토리'의 신상품이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처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의류와 생활용품, 식음료 상품 등 다양한 콜라보 상품이 함께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월 1일, 프yang이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쿠팡 라이브'를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행사 4일 차인 6월 1일에는 프yang이 직접 팝업스토어를 찾아 라이브 커머스 '쿠팡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프토리'를 비롯한 상품들을 직접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한 프yang은 라이브 기획전 수익금 일부를 자영업자 지원과 기부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팝업스토어 곳곳에 배치된 상품 QR 코드를 스캔해 쿠팡 앱 장바구니에 상품을 5개 이상 담으면 팡 없는 가차 머신 이벤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차에서 뽑은 캡슐은 리워드존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차에서 뽑은 빈 캡슐을 '덕력 아카이빙존'에 넣으며 덕력호 탐험을 마무리하는 모습  
 리워드를 수령한 뒤에는 빈 캡슐을 '덕력 아카이빙존'에 마련된 우주선 모양의 조형물에 넣으며 오늘의 방문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남긴 캡슐이 하나둘 쌓이며 덕력호의 탐험 기록을 완성해갑니다.



현장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쿠팡콜라보클럽 한정 에코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10일간 이어진 덕력호 탐험에는 총 11,350 여명의 방문객 이 함께했습니다. 제1호 로켓 덕력호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덕력호에 실렸던 굿즈들은 쿠팡콜라보클럽 전문관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부터 크리에이터 협업 상품까지, 나만의 덕력을 발견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즐거움을 이어가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쿠팡콜라보클럽 바로가기](#)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